

개통조차 못하는 지산IC 77억 ‘허공에’

광주시인수위 사용 불가 결정
예산 낭비 등 책임론 나올 듯
복합쇼핑몰 복수 입점 관측도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IC)이 수십억 원을 날리 예산낭비의 전횡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반면, 대선 등을 거치며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복합쇼핑몰은 광주에 새로운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설로 판단돼 유치에 속도가 붙게됐다.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는 7일 열린 ‘새로운 광주를 담은 첫 번째 보고서’ 전달식에서 이날 중 교

통사고 발생 및 비용 편익 예측 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공론화를 거쳐 10월 안에 지산IC 개통 여부를 결정기로 했다.

폐쇄를 곧바로 결정하기보다 사고 발생 위험성과 관련한 객관적 지표를 먼저 확보하기로 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지만, 사실상 개통 불가 결정인 셈이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도 조사 용역이 폐쇄를 전제로 한 절차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지산 IC는 양방향 총 길이 0.67km, 폭 6.5m로 개설돼 지난해 11월 개통할 예정이었다. 설계와 보상은 광주시(6억원), 공사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 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71억원)가 맡았다. 애초 오른쪽 진출 방식을 적용했지만, 인근 주민 등 민원이 발생하자 일방적인 도로와 달리 왼쪽 진출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됐다.

보완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 개통 불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광주시의 최종 행정절차는 남았지만, 지산IC 진출로는 수십억 매물 비용을 발생시킨 행정 사례로 남게 됐다. 예산 낭비, 설계 변경 책임론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장 실사, 자문위원 등 논의 결과 지산 IC는 개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미 만들어진 도로를 처리하는) 대안도 검토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과정에서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른 복합쇼핑몰 유지는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인수위는 유치 필요성에 대한 시민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고, 쇼핑, 문화, 엔터

테인먼트의 결합을 요청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점을 고려해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시설,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비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 주도형 복합쇼핑몰 유치를 기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수위는 이달이나 다음 달 중 사업자 측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고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설계 공모를 시행하는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복합문화몰 ‘더현대’ 건립 추진 발표로 관심이 커진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챔피언스필드(야구장), 광주천 등 주변 도시디자인과 연계한 복합문화 랜드마크를 조성하도록 권고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민간 사업자의 협상제안서 제출 후 본협상 과정에서 복합 쇼핑 기능을 통해 시민에게 문화와 활력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

조해 복합쇼핑몰 입점 전망을 뒷받침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이날 “더현대가 (광주시 복합쇼핑몰 구상에) 일치한다면 그곳이 될 수도 있고, 아니라면 또 다른 곳이 될 수도 있다”며 “한 군데다, 두 군데다, 어디에 건립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 당선자 시절까지 4곳 이상이 각각 다른 위치를 거론했으며 개점 시기, 규모 등도 달랐다”고 언급, 더현대를 포함한 복수의 복합쇼핑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5+1’ 현안 외에도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슬로건으로 5대 시정 목표, 135개 시정 공약도 제안했다.

/길용현 기자

국힘, 광주서 예산정책협 개최

지역 순회 첫 개최지 선택
윤 대통령 공약 지원·점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복합쇼핑몰 유치를 내걸며 광주 민심을 공략한 국민의힘이 광주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유치에 힘을 보탠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중순에 광주에서 예산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중순부터 권역별로 예산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인 국민의힘은 첫 개최지로 광주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광주 현안을 청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

약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백화점 그룹의 참여 선언으로 공식화한 복합쇼핑몰 유치 문제에 대해 광주시의 입장과 계획을 듣고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27년 만에 광주시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김용남 의원이 참석해 시와 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지역경제 낙후 대표 사례로 복합쇼핑몰이 없다는 사실을 들며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광주시의 복합쇼핑몰 유치 노력을 환영한다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시,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설명회

광주시가 빠르게 다가오는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에 대비해 지역 부품기업 생존을 위한 미래차 전환 추진에 발벗고 나섰다.

광주시는 7일 광주그린카진흥원 대강당에서 광주미래차전환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광주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설명회’를 열고 지역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등 부품기업 지원 기관과 미래차 전환 희망기업 관계

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원센터 운영계획, 미래차 전환 컨설팅, 부품기업 혁신지원사업 소개와 함께 미래차 전환 성공사례 발표 등 지역 부품기업의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정보가 제공됐다.

특히, 미래차 전환 컨설팅 지원은 7월 중에 공고해 ▲내연기관 ▲새시 ▲의장 ▲전장 ▲광·가전 등 미래차 5개 분야에 1개 기업씩 총 5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길용현 기자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취임

“활력 넘치는 도시 만들 것”

민선8기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김광진 전 국회의원이 7일 취임했다.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시의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등 경제분야와 놀거리, 볼거리로 방문객을 유치하는 문화관광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광주시는 신임 김 부시장이 제19대 국회의원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청와대 정부·청년 비서관을 역임하면서 쌓은 국회와 중앙정부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시의 주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국회의원 시절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형성된 군 관련 주요 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는 군공황 이전 등의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새로운 광주시대를 여

는 발걸음에 동참해 주신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께 감사하다”며 “균형발전, 신활력, 청년, 국방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광주가 활력이 넘치고, 기회가 넘치는 도시로 성장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진 부시장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기자실 방문과 시의회 방문 등의 일정으로 부시장직 수행을 시작했다.

/길용현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7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취임식에 참석해 임명장을 전달한 뒤 간부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매일 제2기
Top Leader 상임

CEO 전남매일 창간 33주년을 축하합니다.

Jeonnamdaily news Center

33TH

전남매일 창간

동문 회장 박창순

사무 총장 나인규

전남매일 제2기 CEO경제아카데미 동문 일동